

2021년 5월 23일

#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 가정예배순서 ♥

## ◎ 예배선언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21편 13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시편 21편 13절)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찬 송 / 183장(통172) 빈들에 마른 풀같이

##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 성경봉독 / 다니엘 5장 24절 ~ 6장 2절(구약p.1242)

24.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25.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26.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27.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28.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29.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30. 그 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31.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 때에 다리오는 욕심이 세었더라
- 6장
1.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백이십 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2.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 ◎ 말씀선포 /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오늘은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타고 승천하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믿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 오순절 날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 이시간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임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하였고, 16장 13절에서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감추어진 것을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결코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1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고 사도바울은 말씀합니다. 성도는 진리의 영이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행할 뿐 아니라 아직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죽음의 길로 행하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도는,

1.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깨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 다니엘은 손가락이 벽에 쓴 문장을 해석합니다. 본문 24~25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고 했습니다. 그 글을 그대로 읽으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는 글인데, 다니엘은 문자적인 의미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글을 통해 계시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26~28절입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문자적으로 “메네”가 “계수되다.”는 뜻이고, “데겔”은 “저울로 무게를 달다.”라는 뜻이며, “우바르신”은 “누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이 글은 완전한 문장의 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단어 몇 개로 암호와 같은 글을 보이시고 다니엘을 통해 자세하게 해석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글을 통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바벨론의 때가 되었고, 벨사살은 왕으로 부족하고, 나라는 망해서 둘로 쪼개질 것이다.”라고 계시하신 것이라고 전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심으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언을 다니엘만이 설명할 수 있게 하심으로 지금 이 모든 계시의 주체가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려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지혜보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명확하게 깨닫고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만약 성령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식으로 말씀을 잘못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 지휘관들은 많은 군사학 공부를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공부하는 것이 바로 독도법이라고 합니다. 바로 지도를 보고 표시되어 있는 기호나 내용을 해독하는 기술입니다. 만약 지휘관이 독도법을 모르면 자신의 부하들을 사지로 내모는 일들이 생기고 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더욱 깊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람의 지혜나 지식, 사상이나 철학으로 이해 할 수 없음을 알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바로 알고 바로 행하며 바로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를 얻을 때,

2.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본문 29절입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고 했습니다. 벨사살왕은 약속한 대로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임명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그날 밤에 벨사살왕은 죽임을 당했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새로운 나라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멸망당한 나라의 관리들은 권세를 빼앗기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다리오왕은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임명된 다니엘을 세 명의 총리 한사람으로 임명합니다. 본문 6장 1~2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백이십 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 온 유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에서 그와 같이 높은 지위를 얻은 것은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이방의 나라에서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바벨론에 이어 메대 왕 다리오 시대에도 큰 권세를 맡겨 주신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땅의 왕을 섬기는 신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도는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직업 소명론”을 설파했습니다. 이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직업은 세속적인 일이라는 이원론을 배격하는 사상입니다. 오히려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업과 우리의 삶의 일터가 곧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곳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지켜 행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 하였고, 사도바울도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3장 7절에서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고 권면했습니다. 성도는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을 지키며 성령의 충만으로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행하여 세상의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열심히 전함으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 찬 송 / 185장(통179) 이 기쁜 소식을

## ◎ 폐 회 / 주기도문